

# 17세기 태국·캄보디아·베트남의 정치적 관계 - 두 고래 사이에 낀 새우, 캄보디아 -

조 홍 국\*

## 목 차

- I. 이끄는 말 : 문제제기와 연구현황 및 문헌소개
- II. 베트남의 캄보디아 개입과 태국의 반응 (1660년대까지)
- III. 태국과 베트남 두 고래 사이에 낀 캄보디아 새우 (1680년대까지)
- IV. 맺는 말 : 캄보디아에 대한 태국과 베트남의 이해관계

## I. 이끄는 말 : 문제제기와 연구현황 및 문헌소개

크메르 제국(9 - 15세기)의 영화(榮華)가 사라진 이후,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두 이웃국가인 태국과 베트남의 정치적 간섭 및 지배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태국과 베트남은 무엇보다도 캄보디아를 각기 자신의 영향하에 두기 위해 노력했다. 캄보디아를 둘러싼 이러한 상호경쟁에서 태국과 베트남은 각기 상대방의 세력을 의식했으며, 그 결과 때로는 캄보디아를 일종의 완충국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캄보디아를 사이에 둔 어떤 세력균형의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인도차이나 반도에서의 이러한 양상은 최근에도 확인될 수 있는 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말까지 캄보디아가 베트남의 정치적인 속박하에 있었을 때, 태국은 이에 대해

\*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반(反)베트남 게릴라 단체들을, 특히 크메르루즈를 지원함으로써 캄보디아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키 위해 노력했다(Steinberg 1989, 382).

본고는 캄보디아에 대한 베트남 개입의 시작과 더불어 캄보디아를 둘러싸고 태국과 베트남 간에 치열한 경쟁이 일어났던 17세기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그것은 이 기간의 연구를 통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삼국간 정치적 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세기 캄보디아를 둘러싼 베트남과 태국의 경쟁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역사적 서술들과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캄보디아 사료들을 정리한 Adhémar Leclère (1914, 334-364), 광범위한 문헌들을 종합한 동남아시아 개설서인 D.G.E. Hall (1981, 444-445, 459-462), 그리고 주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보고들을 바탕으로 역사의 재구성을 시도한 Dhiravat na Pombejra (1984)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서술은 종종 삼국의 관계에 대해 분명한 그림을 제시하지 못하며, 심지어 부분적으로 내용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에 비해 Klaus Rosenberg (1975, 87-135), 그리고 Khin Sok (1991, 32-36)은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1670-80년대의 상황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거의 주지 못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태국·캄보디아·베트남 삼국의 17세기 정치적 관계를 역사적으로 보다 정확히 재구성하는 데 있다. 특히 종래의 연구들에서 상이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1682년부터 1687년까지 캄보디아에서의 내전과 이에 대한 태국과 베트남의 군사적 개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670년대 말부터 1680년대 말까지 태국·캄보디아·베트남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해 여러 일차사료들이 동원되었다. 이들은 일본의 이와오 세이이치(岩生成一 1941)와 태국 역사학자인 티라왓 나 폼팻이 부분적으로 소개하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보고서들, 그리고 니콜라 제르베즈(Gervaise 1688), 드 슈와지(De Choisy 1930), 기 따샤르(Tachard 1688) 등 1680년대에 태국을 방문한 프랑스인들의 여행보고서들 외에도 고(古)일본어로 쓰여진 『카이헨파이』(華夷變態)를 포함한다. 이 일본문헌의 주요부분은 당선풍설서(唐船風說書)와 화란풍설서(和蘭風說書)로서, 이들은 일본 정부가 1674년부터 1724년까지 당시 “토센”(唐船)이라고 불린 중국 및 동남아의 다양한 지역에서 온 무역선과 네덜란드 상선, 그리고 나가사키(長崎) 주재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상관장(商館長)들로부터 수집한 외국의 정세에 대한 보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시 나가사키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들은 “토츠지”(唐通事)라고 불리웠던 일본 당국의 공식 역관에 의해 그들이 출발했거나 도중에 들른 나라와 지역의 상황에 관해 질문

을 받았고, 이렇게 획득된 보고들은 일본어로 번역되어 나가사키현의 태수를 통해 중앙정부로 보내졌다.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여러 지역에 관해 귀중한 정보들을 지니고 있는 이 『카이헨파이』는 그러나 이때까지 소수의 학자들 외에는 사료로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sup>1)</sup> 본고에서 이 일본문헌은 종래의 연구들을 수정, 보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비해 태국 아유타야 왕조(1351-1767)의 연대기(年代記)인 『프라랏차 풍사와단 크룽 시 아유타야』(*Phraratcha 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는 불행하게도 1670-80년대 태국·캄보디아·베트남의 관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그밖에도 본 연구에 관계되는 타이 사료의 존재에 대해 이제껏 알려진 바가 없다.

## II. 베트남의 캄보디아 개입과 태국의 반응 (1660년대까지)

태국은 역사적 전개 과정의 과정에서 종종 약한 이웃나라들에 대해 팽창정책을 취했다. 캄보디아는, 특히 1431년에 당시 몰락해가던 크메르 제국의 수도인 앙코르(Angkor)가 타이 군대에 의해 정복당한 후, 자주 태국의 영향하에 들어가게 되었다.(Charnvit Kasetsiri 1976, 122-125). 16세기초에는 캄보디아의 앙찬(Ang Chan) 왕자가 왕위찬탈자를 내쫓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기 위해 타이 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그 후의 캄보디아 역사에서 왕위계승을 지망하는 여러 왕자들에게 하나의 선례가 되었다(Chandler 1993, 81; Leclère 1914, 251 ff). 그 결과 아유타야 왕조의 대부분의 타이 왕들은 캄보디아를 태국의 한 속국으로 간주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태국의 송탐(Song Tham: 1610/11-1628) 왕이 1623년에 일본 정부에 보낸 다음의 서신내용에서 알 수 있다.

“과인(寡人)의 신하국인 캄보디아의 작고한 왕 프리어 스레이 소피어(Prea Srey Sorpor: 1600-1618)는 충성스럽고 순종했습니다. 과인은 그를 왕위에 세워 통치하도록 했고, 그는 자신의 임무를 잘 이행했던 것입니다. 그는 죽을 때,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차이철타(Chey Chettha II: 1618-1628)에게 충성스러운 복종의 의무를 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자는 작고한 부왕의 이 지시를 무시하고 과인의 재가도 없이 왕위를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과인의 권위에 반항하여 조공을 바칠 것을 거절했습니다.”(Satow 1885, 157)

1) 『카이헨파이』에 대해 조흥국(1994, 292-294)을 참조.

한편 캄보디아는 이 문서에서도 뚜렷이 드러나는 것처럼 때때로 태국의 지배를 떨쳐버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특히 태국이 국내정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외부로부터의 위협으로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캄보디아가 심지어 태국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는 양상으로도 나타났다(*Phraratcha 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chabap somdet phra phonnarat wat phra chettuphon*, 35-38; Leclère 1914, 278-281, 341).

대부분의 경우 캄보디아가 태국의 정치적인 영향하에 있었던 16세기 말까지 양국간의 이러한 정치적인 관계에 17세기에 이르러서는 베트남이, 정확히 말하면 남부 베트남의 응우엔(Nguyen) 정부가 그 세력을 캄보디아 지역으로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끼어들었다.<sup>2)</sup> 아데마르 르끌레르(Adhémard Leclère)의 연구에 의하면, 캄보디아에 대한 베트남의 관심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은 1620년에 응우엔 가문의 한 공주가 차이첻타왕의 왕비가 되어 베트남의 영향이 캄보디아 궁정에 심겨졌을 때였다(Leclère 1914, 339). 그 관심은 주로 당시 캄보디아의 동남부 영토였던 메콩델타에 놓여져 있었다. 그리하여 1623년에 응우엔 베트남의 통치자인 사이브영(Sai Vuong: 1613-1635)은 그의 캄보디아 사위에게 “왕국의 남단에 안남(安南)인들의 정착촌들을 세울 권한과 이 정착지역들을 유지키 위한 조치로서 쩌레이꼬(Prey-kor, 현 사이공 지역)에 세관을 설치할 권리”를 요청했다. 차이첻타는 이 요구를 들어주었는데, 이것은 베트남인들에게 오늘날 코친차이나(Cochinchina)라고 불리는 지역을 점차 차지하게 되는 바탕을 제공한 셈이 되었다(Leclère 1914, 339-340).

응우엔 베트남인들은 1658년부터 캄보디아에 정치적으로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여 태국과 캄보디아간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 해에 응우엔 정부는 당시 캄보디아 왕자들간의 왕위투쟁을 둘러싼 내전의 한 당사자인 폰허어소(Ponhea So)의 요청에 따라 군대를 파견하여 당시 캄보디아의 수도인 우동(Udong)을 점령하고 이브라힘(Ibrahim)이란 이름으로 이슬람으로 개종한 캄보디아왕 찰(Chan: 1642-1659)을 포로로 붙잡았다. 캄보디아의 왕위에는 찰왕의 사촌이자 뒤에 바우똌 리어치어(Bautum-réachea III: 1659-1672)의 시호(諡號)로서 알려져 있는 폰허어소가 앉혀졌는데, 이로써 캄보디아는 그 역사상 처음으로 조공의 의무를 진 베트남의 속국이 되었다(Leclère 1914, 351-352; Hall 1981, 460).

2) 응우엔 세력과 북부 베트남의 쩌(Trinh)세력에 대해 Buttinger (1958, 164 ff.)와 Chesneaux (1963, 46 ff.)를 볼 것.

당시 베트남인들의 캄보디아 점령은 태국의 아유타야 연대기들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독일의 태국학자 클라우스 로젠베르크(Klaus Rosenberg)가 지적하는 것처럼, 타이인들이 캄보디아에서의 새로운 사태발전과 특히 베트남인들의 역할에 대해 처음부터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Rosenberg 1975, 90)<sup>3)</sup>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 VOC)의 보고에 의하면, 아유타야의 나라이(Narai: 1656-1688) 왕은 베트남인들의 캄보디아 침략을 피해 1659년에 태국으로 도망쳐 온 영국인들에게 캄보디아의 상황에 대해 물어 보았다(Dhiravat na Pombejra 1984, 288). 이로 볼 때 당시 타이 정부는 캄보디아에서의 사태진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유타야의 네덜란드인들은 1658년에서 1659년 사이에 큰 군대를 동원하고 있었던 태국의 왕이 캄보디아나 북쪽의 란나(Lan Na) 지방으로 그 병력을 이동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나라이왕은 1660년 12월에 치앙마이(Chiang Mai)로 향했다(Dhiravat na Pombejra 1984, 286-287). 만약 나라이왕이 당시에 캄보디아로의 원정을 실제로 계획했다고 한다면, 위의 결정은 아마 캄보디아에 대해 이미 확고한 통제를 확보한 베트남인들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한 고려에서 내려진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한편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은 태국에게 수천명의 인력 증가라는 이득을 가져왔는데, 전쟁 피난민의 형태로 제발로 온 이 인력들은 태국으로서는 언제나 필요로 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아유타야 연대기에 의하면, 1658년에 캄보디아에서 의지할 곳을 상실한 까바우(Kabau)라는 이름의 한 무슬림 여인이 모두 773명이나 되는 귀족관리들 및 그 종자들과 함께 태국으로 피신해 왔다(*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chabap phan canthanumat*, 171). 이들은 짐작컨대 르끌레르가 말하는 캄보디아의 찰(Cham)인들 및 말레이인들과 동일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국인 무슬림들은 새로운 왕의 통치하에서 이전의 이권들을 박탈당하고 1660년경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자 태국으로 망명했다(Leclère 1914, 352-353). 아유타야 연대기는 이어서 1659년에 캄보디아 불교계의 최고지도자인 승왕(僧王: Sangharaja)을 포함한 여러 왕족들과 귀족관리 및 그 가족 등 모두 2200여명이 아유타야에 와 나라이왕에 의해 영접되었다고 말한다(*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chabap phan canthanumat*, 172).<sup>4)</sup>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기록에 의하면, 옹우엔 정부는 1660년 3월에 아유타야

3) 예를 들어 *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chabap phan canthanumat* (Vol. 39, 170-171).

4) Leclère (1914, 353)을 비교할 것.

로 무역사절을 파견했다. 이것은 베트남인들이 전통적으로 태국의 영향권하에 있었던 캄보디아로 군사적인 개입을 한 것에 대해 타이 정부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취한 외교적인 책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위의 베트남 사절은 아유타야에서 푸대접을 받았는데,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타이인들이 베트남의 캄보디아에 대한 침입을 못마땅히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Dhiravat na Pombejra 1984, 288). 네덜란드 문헌들을 바탕으로 한 이와오 세이이치(岩生成一)의 연구에 의하면, 나라이왕은 이미 1659년 8월에 응우옌의 적(敵)인 북베트남의 쩐(Trinh) 정부로 한 사신을 파견했다(1941, 107). 그 이듬해에 또 다른 태국 사절이 하노이(Hanoi)로 보내졌는데, 르클레르에 의하면, 그 목적은 “남쪽의 응우옌에 대항하여 동맹을 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Leclère 1914, 352)<sup>5)</sup> 그러나 이러한 사절들의 결과는 알려져 있지 않다.

아유타야 주재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상관장인 요한네스 반 데르 스페이크(Johannes van der Spijck)의 1669년 1월 12일자 보고에 의하면, 나라이왕은 1668년 12월에 캄보디아의 해안을 봉쇄하기 위해 다섯 척의 배를 파송했다. 타이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비록 티라왓 나 폼벳(Dhiravat na Pombejra)이 말하는 것처럼 그 구체적인 배경이 확인될 수 없으나, 어쨌든 적어도 당시 태국이 캄보디아에 대한 관심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Dhiravat na Pombejra 1984, 308).

### Ⅲ. 태국과 베트남 두 고래 사이에 낀 캄보디아 새우 (1680년대까지)

1670년대 초부터 1680년대 말까지 캄보디아 궁정에는 왕위를 두고 서로 싸우는 왕자들간의 투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여기에 이제는 태국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나라이 정부는 1674년에 캄보디아의 내란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캄보디아에서의 우세한 위치를 둘러싸고 처음으로 태국과 베트남간에 직접적인 충돌을 낳았다. 두 세력간의 이러한 경쟁의 과정에서 캄보디아 자체내에 상호 적대적인 두 개의 파벌이 형성되어, 한 파는 베트남으로부터, 다른 한 파는 태국으로부터 군사적인 지원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Rosenberg 1975, 91).

5) 岩生成一(1941, 107)에 의하면, 나라이왕은 1661년에 서신을 휴대한 사신을 또 한번 북베트남 정부로 파견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기록에 의하면, 차이첻타 4세의 시호로 알려져 있으며 1674년부터 1706년까지 수차례 일시적인 중단을 겪으면서 캄보디아를 통치했던 앙소(Ang Sor) 왕은 1674년 9월에 그의 조카를 아유타야에 보내 총과 양식을 요청했다. 그 목적은 자신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난 조카 앙논(Ang Non)과 그의 베트남 동맹자에 대해 최종적인 승리를 획득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위의 사신은 타이 궁정에서 형편없는 대접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지원을 얻었다. 이 캄보디아의 왕자는 그 이듬해에도 태국에 왔으나, 이번에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Dhiravat na Pombejra 1984, 334-335). 베트남의 왕조실록인 '다이남특록'(Dai Nam Thu'c Luc) 역시 앙논과 더불어 싸우는 한 캄보디아 왕자가 1674년에 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쓰고 있다. "낙오다이(Nac O Dai)", 즉 프리어 우타이(Prea Outey)란 이름의 이 왕자는 그러나 '앙소'의 이름과 연관시키기가 어렵다(Rosenberg 1975, 91).

르끌레르는 1674년에 타이 정부가 앙소에게 준 부분적인 군사원조에 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 의하면, 앙소왕, 즉 차이첻타 4세는 어쨌든 앙논을 코친차이나로 내쫓는 데 성공했다(Leclère 1914, 355).<sup>6)</sup> 이후 그는 1688년경까지 베트남인들의 지원을 받는 사촌의 지속적인 도전과 싸워야 했다. 그 과정에서 차이첻타 4세의 정부는 친베트남적인 앙논에 비해 태국의 후원에 의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에 관해 1682년에 태국에 와서 4년간 활동한 프랑스 선교사인 니콜라 제르베즈(Nicolas Gervaise)는 당시 캄보디아의 내전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면서, "낙논(Nac-Non, 앙논)은 자신의 우세에 대해 자신이 없었으므로 코친차이나의 왕으로부터 도움을 구했다. 그에 비해 낙손(Nac-Son, 앙소)은 시암 왕의 보호에 의지하여 군대와 돈의 제공을 받았다."라고 말한다(Gervaise 1688, 278). 이러한 배경하에서 1676년에 응우옌 정부의 한 왕자가 타이 정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목적은, 티라왓 나 폼멧 역시 추측하는 것처럼, 아유타야의 나라이왕에게 차이첻타 4세와의 동맹을 그만두도록 권유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Dhiravat na Pombejra 1984, 335).

홀(D.G.E. Hall)은 사이공 일대의 코친차이나 지역을 거점으로 삼은 앙논이 1679년에 수도 우동을 공격했으나 타이 군대를 불러들인 앙소에 의해 격퇴되었다고 쓴다(Hall 1981, 444).<sup>7)</sup> 차이첻타 4세에 대한 태국의 이같은 1679년의 군사지원, 비록 르끌레르가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카이헨마이』에 있는 음력 1679년 8

6) Hall (1981, 461)을 비교할 것.

7) Leclère (1914, 355)와 Rosenberg (1975, 91)를 비교할 것.

월 21일(양력 1679년 9월 25일)자의 한 캄보디아 상선의 보고에서 확인된다.<sup>8)</sup> 이 일본 문헌에 의하면, 앙소와 앙논으로 각각 동일시될 수 있는 “대왕의 아들(大王之子)”과 “이왕의 아들(二王之子)”이라는 캄보디아의 두 라이벌 왕자들이 당시 왕좌를 둘러싸고 서로 싸우고 있었다. 『카이헨파이』의 보고는 계속 다음과 같이 전한다.

“이왕(二王)의 아들측이 광남(廣南, 응우옌)으로부터 600명의 군사지원을 획득한 후, 대왕(大王)의 아들은 그에 대해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쌍방은 작년부터 올봄까지 서로 노려보기만 했다. 이에 대왕의 아들이 시암에 군대지원을 요청하자, 시암 정부는 즉시 동의하여 5-6,000명 정도의 병력을 파송했다. 이로써 대왕의 아들의 군사력은 이제 그 자신의 10,000명에다가 시암의 군대와 더불어 모두 15-16,000명이 되었다. 한편 이왕의 아들의 세력은 자신의 5-6,000명 군대와 응우옌의 병력 600명 정도로 되어 있다. 올 [음력] 4월 2일의 치열한 전투에서 이왕의 아들은 패하여 라오스로 도망갔으며, [중략] 원군(援軍)인 응우옌의 군대는 베트남으로 도주했다.”(『華夷變態』, 303)

그러나 앙논은 이 때 라오스로 피신하지 않고, 음력 1681년 6월 25일(양력 1681년 8월 8일)자의 다른 『카이헨파이』의 보고가 바르게 말하는 것처럼, 응우옌의 원군과 함께 베트남으로 도망했다. 이 『카이헨파이』의 보고 역시 태국에 의뢰하여 병력의 지원을 받은 “일왕(一王)” 즉 “대왕”의 적자(嫡子)가 응우옌 정부와 동맹한 “이왕” 즉 그의 라이벌 왕자에 대해 군사적인 승리를 거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 문헌은 그밖에도 당시 캄보디아 정부가 매년 시암으로 조공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으며, 동시에 베트남인들에게도 해마다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에게 피해 있는 “이왕” 즉 앙논을 후원하지 말기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華夷變態』, 327).<sup>9)</sup> 음력 1682년 7월 3일(양력 1682년 8월 5일)자의 한 타이 상선의 보고에서도 차이철타 4세의 캄보디아 궁정이 응우옌 정부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것이 확인된다(『華夷變態』, 351). 그리고 베트남의 왕조실록에 의하면, 응우옌 베트남인들은 1674년경에 그들의 피보호자인 앙논 뿐만 아니라, 우동의 캄보디아 정부에게도 매년 조공을 바칠 것을 강요했다(Rosenberg 1975, 91).

1680년대에 걸쳐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간의 관계는 일단의 중국 피난민들이 캄보디아에 내도(來到)함으로써 더욱 복잡해졌다. 약 3000명을 헤아리는 이들은 멸망한 명(明) 왕조에 충성하는 무리로서 청조(淸朝)의 수군에 쫓겨 1682년

8) 음력에서 양력으로의 환산은 鄭鶴聲(1981)에 바탕을 두었음.

9) Hall (1981, 444)를 비교할 것.



에 당시 앙논이 통제하고 있었던 메콩델타 지역에 상륙했고 곧 이어 캄보디아의 내전에 휘말렸다(Hall 1981, 444-445). 이 중국인들과 연합한 앙논과 차이첻타 4세 즉 앙소 사이의 1682년부터 1687년경까지의 전투와 캄보디아에 대한 태국과 베트남의 군사적 개입에 관해서는 다양하면서도 한편 서로 다른 정보들을 내포하고 있는 서술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사료들과 프랑스 여행보고서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 문헌 『카이헨파이』를 근거로 두고, 여기에 르끌레르(A. Leclère)와 홀(D.G.E. Hall)의 서술들을 비교함으로써 캄보디아의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우선 르끌레르에 의하면, 일단의 중국인 병력에 의해 군사적으로 강화된 앙논이 1682년경에 그의 사촌인 캄보디아왕을 재차 공격하자, 이에 대해 준비태세를 갖추지 않았던 차이첻타 4세는 그의 궁정을 모두 이끌고 수도 우동을 떠나 태국과의 국경에 가까운 서북의 삼롱통(Samrong-tong) 지방으로 피신했다(Leclère 1914, 356-357). 이 서술은 『카이헨파이』의 한 정보를 통해 보충된다. 음력 1683년 6월 1일(양력 1683년 6월 25일)자 타이 상선의 한 보고에 의하면, 음력 1682년 11월에 3000명 정도의 칸톤(廣東) 지방 중국인들이 양어(楊二)란 자의 지휘하에 병선 70여척을 타고 캄보디아에 도착했는데, 캄보디아의 정부는 이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여 그 백성과 함께 산중 깊숙히 도피했다(『華夷變態』, 366-367). 이에 비해 제르베즈 신부는 중국인 도당(徒黨)을 거느린 “낙논”(Nac-Non)이 “낙손”(Nac-Son) 즉 차이첻타 4세를 여러 전투에서 격파했고, 이 때 “시암 군대가 그의 병사들에 의해 조각조각 잘렸다”(les Troupes Siamois furent taillées en pieces par les siennes)라고 말한다(Gervaise 1688, 278). 앙논의 군대에 의해 죽은 이 타이 부대들은 프랑스 제수이트 신부인 기 따샤르(Guy Tachard)가 언급하는 시암의 원군(援軍)과 동일시될 수 있다. 이 원군은, 따샤르의 보고에 의하면, 캄보디아의 왕이 1682년에서 1683년 사이에 “코친차이나의 왕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반란을 일으키는 그의 한 신하”를 대항하기 위해 태국의 왕에게 요청한 것이었다(Tachard 1688, 205-206).

『카이헨파이』의 음력 1683년 7월 14일자(양력 1683년 9월 4일) 타이 상선의 한 보고에 의하면, 삼롱통 지방의 밀림에 있던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의 아유타야 정부에게 캄보디아에 들어온 중국인 침입자들에 관해 알렸고, 이에 타이 정부가 그 중국인들의 두목인 양어(楊二)에게 사신을 파견했다(『華夷變態』, 397-398). 이와 관련하여, 아유타야 주재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상관장이었던 아르노우트 파(Aarnout Faa)가 1683년 2월과 1684년 1월 사이에 쓴 서신들로부터 추측될 수

있는 것처럼, 당시 타이 정부가 중국인들의 태국 영토에 대한 침입을 두려워 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Dhiravat na Pombejra 1984, 354). 위의 일본 사료에서 언급된 타이 정부의 양어에 대한 사실판단은 다른 문헌들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프랑스 여행보고서들로부터 추출되는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1682년 말에서 1683년 사이에 패배하여 쫓긴 앙소가 재차 태국의 병력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다시 제르베즈를 인용하면, 패배한 후 “적의 손에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밀립으로 피신해야 했던” 차이철타 4세는 아유타야의 나라이왕에게 다시 한 번 군사적 지원을 요구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태국의 왕이 그의 정예부대들 중에서 500명을 보냈다. 이들은 그러나 “숫적으로 너무 적어 많은 적의 군대에 대항할 수 없었으며, 대부분 전사하고 말았다”(Gervaise 1688, 278-279). 캄보디아에서 죽은 이 타이 군인들은 프랑스인 드 슈와지(de Choisy)가 말하는 바, 1684년에 아유타야 정부가 응우옌 정부에 의해 지원받는 캄보디아의 반란군들을 대항하여 파송한 한 원정부대의 500명 군인들과 동일시될 수 있다. 드 슈와지에 의하면, 이 원군 역시 격파당했고, 500명은 포위당하여 “항복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흙을 먹었다”(qui mangent la terre, & ne veulent point se rendre) (De Choisy 1930, 168-169, 191).

위의 서술들에 비해 르플레르는 태국이 삼룡통에 있는 캄보디아의 망명정부에게 작은 규모의 원군을 파견했는데, 차이철타 4세가 이로써 1684년에 공세를 취하여 그의 적을 패주시켰고 그 다음 해에 마침내 그의 궁정과 함께 수도 우동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어서 르플레르는 쓰기를, 태국의 왕이 1683년에 앙논에게도 군사적인 도움을 주었는데, 이때 아유타야 정부는 캄보디아에서의 내전을 계속 부채질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Leclère 1914, 357). 그러나 르플레르가 말하는 바, 앙논에 대한 차이철타 4세의 성공적인 출정(出征)은 다른 문헌들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며, 더군다나 태국이 앙논에게도 병력을 지원했다는 주장은, 티라왓 나 폼벳 역시 지적하는 것처럼,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Dhiravat na Pombejra 1984, 364 n.53).<sup>10)</sup>

오히려 캄보디아왕 차이철타 4세는 1684년경에도 해안에 익숙한 중국인 무리는 커녕 이들과 연합한 앙논의 세력을 아직 제압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드 슈와지의 여행보고서가 전하는 것처럼, 아유타야의 나라이 정부는 1685년 말에 캄보디아로 재차 16000명 병력의 육군과 60척 정크(“galères”)의 상당한 규모의 수군을 파견했고, 그해 12월 말에 또 다른 6척의 정크와 3척의 전선

10) Hall (1981, 461)과 Hutchinson (1968, 144)을 비교

(“vaisseaux de guerre”)이 뒤따르기로 했다(De Choisy 1930, 205, 210). 이 서술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제르베즈 역시 보고하기를, 나라이왕은 1685년 말에 캄보디아의 그의 피보호자 “낙손”에게 다시 한번 군사적인 지원, 즉 “18000명 병력의 육군과 포르투갈 및 영국 선장들에 의해 지휘되는 큰 배 4-5척의 함대, 그리고 최고로 용감한 타이 장교들이 이끄는 60척의 큰 정크”를 제공하려고 했다고 한다(Gervaise 1688, 279).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몇 문서들에 의하면, 차이첻타 4세는 이미 1685년 초에 앙논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한 포르투갈인 사신을 아유타야의 궁정에 보냈다. 이에 타이 왕은 그 해에 “약 2500명의 진상조사 원정대를 캄보디아로 파송했는데, [중략] 차이첻타에게 아무런 도움은 주지 않았다”(Dhiravat na Pombejra 1984, 433). 티라왓 나 폼뻬이 그대로 믿는 이러한 네덜란드인들의 당시 상황판단은 그러나 유보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밖에도 위에서 본 바, 두 프랑스인들이 전하는 차이첻타 4세에 대한 태국의 1685년 군사지원은 음력 1687년 5월 6일(양력 1687년 6월 15일)에 태국을 떠난 한 타이 상선의 보고에서도 확인된다. 이 일본문헌에 의하면, 당시 아직까지도 산중에 있던 캄보디아 정부는 이미 2년전에 즉 1685년경에 타이 정부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청했다. 그 보고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시암에서 온 원군은 [우선] 산중에 머물러 있었다. 금년에 [캄보디아]정부는 산중으로부터 출발하여 이왕(二王)과 황(黃)씨란 자를 모두 쫓아냈다. [중략] 황씨의 무리는 이왕을 수호하여 광남(응우옌 지역)으로 도망했다. 산중의 정부는 이전처럼 다시 캄보디아에 있게 되었다.”(『華夷變態』, 784)

여기서 황(黃)이란 인물에 대해서는 『카이헨파이』의 음력 1689년 8월 10일(양력 1689년 9월 22일)자의 한 다른 보고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그의 완전한 이름은 황진(黃震)으로서, 자신의 두목인 양어(楊二)를 죽인 후에 스스로 중국인 도당의 지도권을 차지했다(『華夷變態』, 1154-1155).<sup>11)</sup> 위의 인용문에서는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1685년에 파송되었을 태국의 원군은 차이첻타 4세를 군사적으로 도와 성공적인 공세를 수행케 하고 1687년에는 마침내 수도로 돌아오도록 했다고 보여진다. 이 점은 특히 음력 1687년 8월 7일(양력

11) Hall (1981, 461-462)은 캄보디아 자료를 바탕으로 “1688년에 중국인 두목 楊은 그의 부하 황진(Houang Tsin)에 의해 살해당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1688년이란 연도는 위의 1687년의 『華夷變態』 보고에 비추어 최소한 1687년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1687년 9월 13일)자 빠따니 상선의 한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암시되어 있다.

“대왕(大王)은 산중에 숨어 있었고, 이왕(二王)은 중국인들에 의해 옹립되어 해변에 거했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가 시암에 원군을 요청한 후, 대왕은 산중으로부터 출격하여 이왕을 토벌했고, 이왕의 군대는 응우옌으로 도망했다.”(『華夷變態』, 800)

여기서 “대왕”과 “이왕”은, 이미 위에서 본 것처럼, 각각 차이철타 4세와 앙논으로 동일시될 수 있다. 끝으로, “대왕”이 자신이 요청한 태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지원의 덕택으로 그의 경쟁자인 “이왕”과 그 중국인 동맹자들을 패퇴시킬 수 있었다는 위의 두 『카이헨파이』 보고들의 내용은 음력 1690년 7월 2일(양력 1690년 8월 6일)자 아모이(夏門) 상선의 보고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華夷變態』, 1265-1266).

앙논 및 그의 추종자들과 중국인 동맹자들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해안지역은 그후 곧 중국인들에 의해 다시 장악되었다고 보여진다. 이 점은 무엇보다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1687년 말 보고서들로부터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1687년에 타이 정부는 태국왕에 의해 고용된 호우웰(Howell)과 윌리엄스(Williams)라는 두 명의 영국인 선장들을 캄보디아 해안으로 파견했는데, 그것은 태국만의 동부 해안을 따라 항해하는 태국 상선들을 위협하는 중국인 해적들(“pirates”)을 소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달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Dhiravat na Pombejra 1984, 433). 음력 1689년 8월 10일(양력 1689년 9월 22일)자의 한 베트남 상선의 보고에 의하면, 캄보디아 해안에서의 해상교통을 방해하는 황전(黃震) 수하 중국인 도당의 문제는 마침내 베트남인들에 의해 해결되었다(『華夷變態』, 1154-1155).<sup>12)</sup>

후에(Hue)의 응우옌 정부는 차이철타 4세가 태국의 도움으로 우동에서의 자신의 통치를 회복한 캄보디아 사태의 전개에 대해 결코 소극적인 자세로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다. 베트남인들은 태국을 등에 업은 차이철타 4세가 특히 1688년경에 후에 정부에게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하자, 이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응우옌 정부는 앙논과의 군사적 연합을 통해 캄보디아를 자신의 영향하에 두기 위해 계속 노력했으며, 그 결과 1689년경에 차이철타 4세의 정부는 마침내 베트남의 종주권 역시 인정해야 했다(Hall 1981, 462; Leclère 1914, 358).<sup>13)</sup>

12) Hall (1981, 462)를 비교

#### IV. 맺는 말: 캄보디아에 대한 태국과 베트남의 이해관계

이때까지 살펴본 타이 정부의 캄보디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들은 일차적으로는 전통적으로 속국중의 하나로 간주되어 온 이 나라에 대해 태국의 종주권을 재차 확립하려는 정치적인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 타이 정부가 1687년에 캄보디아 해안으로 영국 선장들의 지휘하에 태국의 해상 병력을 파송한 경우에서 처럼, 경제적인 이해관계 역시 있었다고 보여진다. 『카이헨파이』의 곳곳에서 암시되어 있듯이, 캄보디아 해안은 남중국해를 무대로 무역활동을 하는 타이 상선들에게 일시적인 정박을 위한 유리한 지리적 조건들을 제공했다. 그밖에도 캄보디아는 태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들에 속하는 안식향(benzoin), 수지(gumlac), 동물가죽 등을 생산했다(Smith 1977, 86). 이와오 세이이치(岩生成一)의 연구에 의하면, 1678년 10월 초부터 그 이듬해 9월 말까지 아우타야를 출항한 상선 총 118척 가운데 캄보디아로 향하는 것이 46척으로서 가장 많았고, 같은 기간 동안 아우타야로 입항한 총 104척 가운데 캄보디아로부터 온 것이 18척으로서 역시 가장 많았다(1941, 111). 비록 일년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이 통계는 당시에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활발한 무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므로 타이 정부가 이처럼 중요한 교역지역 및 항해루트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캄보디아를 그 통제하에 두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에 비해 캄보디아에 대한 응우옌 정부의 군사적 개입은 주로 영토적인 고려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북부의 쩐(Trinh)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응우옌 정부로서는 서남쪽으로, 즉 당시 캄보디아의 소유였던 메콩강 하류와 델타의 비옥한 지대로만 그 팽창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상의 짧은 분석을 통해 17세기 태국·캄보디아·베트남 간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관계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으며, 그것도 주로 타이 정부의 입장에서 논의되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본 연구를 뒷받침한 사료들의 성격에 기인한다. 캄보디아인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르끌레르가 사용한 것 이외의 다른 신빙성있는 크메르 사료들을 더욱 많이 찾아내어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

13) 『華夷變態』(1155, 1289-1290)를 또한 참조할 것.

다. 타이어로 번역된 “랏차 풍사와단 끄룽 캄푸차”(Ratcha phongsawadan krung kamphucha), 즉 『캄보디아 왕실 연대기』는 내용의 빈약성과 뚜렷한 친 타이적 색채로 인하여 이 점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편 베트남의 대(對)태국 및 캄보디아 이해관계를 더욱 광범위하고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사료들이 참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아쉬운 점들은 차후의 연구에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조흥국. 1994. "17세기 타이 역사사료 연구 - 타이사료들과 일본문헌 '카이헨파이' (『華夷變態』)를 중심으로." 『東方學志』 제84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岩生成一. 1941. "泰人の對日國交貿易復活運動." 『東亞論叢』 4.
- 鄭鶴聲 編. 1981. 『近世中西史日對照表』. 北京: 中華書局.
- 『華夷變態』. 1938. 3冊. 東京: 東洋文庫. 1958.
- 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chabap phan canthanumat* (판잔타누맛 본 아유타야 연대기). 1969. Bangkok: Ongkankha khong khru sapha.
- Phraratcha 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chabap somdet phra phon-narat wat phra chettuphon* (프라 쳇뚜폰 사원의 프라 폰나랏 본 아유타야 왕실연대기). 1971. Bangkok: Khlang Watthaya.
- Ratcha phongsawadan krung kamphucha* (캄보디아 왕실 연대기). 1970. Bangkok: Krom Sinlapakon.
- Buttinger, Joseph. 1958. *The Small Dragon: A Political History of Vietnam*.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 Chandler, David P. 1993. *A History of Cambodia*. St. Leonards: Allen & Unwin.
- Charnvit, Kasetsiri. 1976. *The Rise of Ayudhya : A History of Siam in the Fourteenth and Fifteenth Centuri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Chesneaux, Jean. 1963. *Geschichte Vietnams*. trans. Ernst-Ulrich Kloock. Berlin: Rütten & Loening.
- De Choisy, François-Timoléon. 1930. *Journal du Voyage de Siam, fait en 1685 & 1686*. Paris: Editions Duchartre et Van Buggenhoudt.
- Dhiravat na Pombejra. 1984. "A Political History of Siam under the Prasatthong Dynasty 1629-1688." Ph.D. thesis, University of London.
- Gervaise, Nicolas. 1688. *Histoire naturelle et politique du Royaume de Siam*. Paris: Claude Barbin.
- Hall, D.G.E. 1981. *A History of South-East Asia*. 4th ed. London: Macmillan Press.
- Hutchinson, E. W. 1968. *1688 Revolution: The Memoir of Father de Bèze s.j.* Hongkong: Hongkong University Press.

- Khin Sok. 1991. *Le Cambodge entre le Siam et le Viêtnam (de 1775 à 1860)*. Paris: 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 Leclère, Adhémar. 1914. *Histoire du Cambodge depuis le 1er siècle de notre ère*. Paris: Librairie Paul Geuthner.
- Rosenberg, Klaus. 1975. "Die Beziehungen zwischen Siam und Vietnam im Spiegel des Dai Nam Thu'c Luk (tien bien und chinh bien de nhat ky)." *Oriens Extremus*, 22.
- Satow, E.M. 1885. "Notes upon the Intercourse between Japan and Siam in the Seventeenth Century."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2.
- Smith, George Vinal. 1977. *The Dutch in Seventeenth-Century Thailand*.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 Steinberg, David Joel. ed. 1989. *In Search of Southeast Asia: A Modern History*. St. Leonards: Allen & Unwin.
- Tachard, Guy. 1688. *Voyage de Siam des Peres Jesuites (1685-1686), Envoyés par le Roy, aux Indes à la Chine, Avec leurs Observations Astronomiques, & leurs Remarques de Physique, de Géographie, d'Hydrographie, & d'Histoire*. Paris: Pierre Mortier.